

삶의 한 순간 담은 '짧은 소설' 호응

'엽편소설' '코멘터리' 등 새로운 형식의 소설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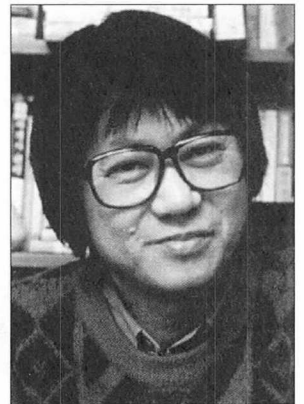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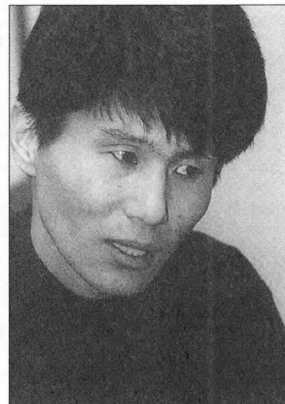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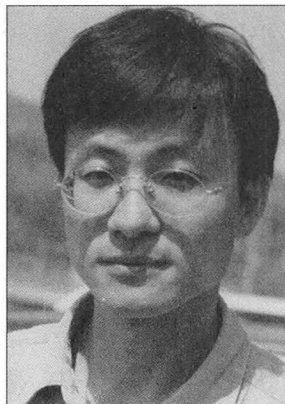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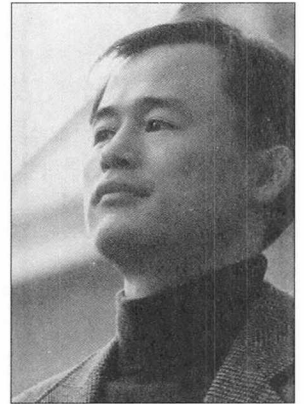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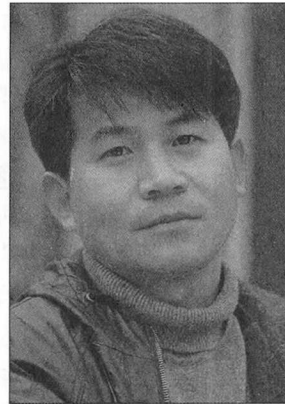
짧은 분량이지만 세상을 보는 진지한 시선, 섬광같은 주제의식, 정선된 언어구사 등으로 독자적인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는 '짧은 소설'이 서사구조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서고 있다. 시류를 좇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짧은 소설'은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엽편소설', '짧은 소설', '코멘터리', 소설이라 하기엔 분량이 적고, 풍트라 하기에는 내용의 완결성이나 진지한 시선이 '튀는' 책들이 잇따라 나왔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 여름 이후. 최초의 엽편소설집인 최성각씨의 《택시 드라이버》(세계사)가 출간되면서부터다. 그후 각 문학지를 중심으로 '엽편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작가세계》는 이미 96년 봄호부터 엽편소설 고정란을 마련했고, 여름호에는 하창수·최성각씨 등의 엽편소설을 실었다. 가을호에는 엽편소설로 신인작가를 등단시키기까지 했다. 《문학사상》 8월호에도 짧은 작가 12인의 엽편소설이 특집으로 실렸다. 최근에는 '코멘터리'라는 새로운 형식이 등장해 '짧은 소설'에 대한 비평계나 출판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섬광같은 주제의식으로 문학성 확보

국민서관에서 펴낸 《패자부활》(고원정)과 《귀여운 보디가드》(박덕규)는 각기 '코멘터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코멘터리(Commentary)'의 사전적인 의미는 코멘트보다 좀더 집중적인 해설과 비평을 의미하는 말. 박덕규씨는 "짧은 소설의 극적 반전이 주는 풍자적 재미와 현실의 뒷면을 파고드는 촌철살인의 논평을 함께 결합한 형식"이라고 말한다. 짧은 글이 쉽게 대중에게 파고들지만, 신변잡기적 소재가 많아 문학성을 담기 힘들어 이같은 형식을 시도했다고 밝힌다. 《귀여운 보디가드》는 PC 통신에 연재한 내용을 묶은 것인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 두 책의 내용은 서민들이 살아가면서



최근 들어 문학성을 지닌 '짧은 소설'을 발표하는 작가가 늘고 있다. 위쪽 왼쪽부터 고원정·박덕규·성석제·구효서·박상우·김소진·윤대녕·최성각씨.

흔히 만날 수 있는 작은 사건에 익살과 유머를 보탠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고달프고 신산한 세상살이에도 불구하고 따스한 체온을 간직한 사람들의 이야기, 세태풍자의 비판적 어조를 띤 것, 작가 자신이 알고 지내는 소설가들을 주인공으로 다룬 줄거리, 셀러리맨의 애환과 괴로움을 담은 일상이야기가 때로는 기습 정하게, 때로는 섬뜩하게 와 닿는다.

이른바 '잘 나가는' 짧은 작가들이 펴낸 《소설가는 유서를 남기지 않는다》(박상우), 《바람부는 쪽으로 가라》(김소진)(이상 예문), 《정육점 여인에게서》(윤대녕), 《꿈에 기대어》(구효서)(이상 하늘연못), 성석제 소설 《제미나는 인생》(강)도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들 작품을 '소설로 구성하기에 모자라거나 완결성을 지니지 못한 파편적 이야기'인 콩트와 구분하는 것은 한편 한편이 비교적 분명한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짧은 분량이지만, 세상을 보는 진지한 시선, 섬광같은 주제의식, 정선된 언어구사로 독자적인 문학성을 확보하고 있다.

코멘터리의 경우는 짤막한 이야기들의 말미에 아예 주제와 관련된 교훈적인 글을 붙이기까지 했다.

문학평론가 김경수씨는 엽편소설에 대해 "주제를 명료하게 드러내고 밀도있게 언어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소설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문학의 본질은 길이에 있지 않고, 발상의 기발함과 재기 넘치는 서술, 그리고 도덕적 교훈을 내장하는 결말의 반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문학에서도 황순원·허윤석·조세희 등이 짧은 소설로 문학적 성과를 얻었으며, 영미권에서는 'Short Story' 'Sudden Fiction', 일본은 '초단편소설'로 자리를 잡았다. 긴 소설의 경우 구성이나 다른 요소들에 의해 가려지기 쉬운 문장, 단락 하나하나에 공을 들인 것도 서사구조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다.

우려와 긍정의 시각 교차

이같은 긍정적인 시각에 힘입어 일각에서는 요즘의 독서성향과 바빠진 생활의 변화에 부합하는 '짧은 소설'이 소설시장에 한

돌파구가 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사에서는 프랑스·독일·일본과 영어권, 중앙미권의 엽편소설집을 시리즈로 낼 예정이고, 현재 프랑스편을 작업 중이다. 코멘터리를 펴낸 국민서관도 두 책의 반응을 살펴본 후 후속작품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나온 책들이 일관된 주제 아래서 쓰여지기보다 '사보'나 기타 지면에 쓴 글의 모음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시간을 들여 책을 읽지 않으려는 잘못된 독서풍토를 출판계와 작가가 좇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엽편소설이나 짧은 소설은 우려와 긍정의 시각이 교차하는 사이에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짧은 글 안에 담긴 삶의 한 순간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글의 길고 짧음이 문학성과 비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말이다. 문학의 자기정화 능력을 믿는다면, 다음 선택은 독자들의 몫인 셈이다.

— 이현주 기자